

광주·전남 코로나19 산발감염 '지속'

확진자 감소세...다양한 직업군서 확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당부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줄고 있지만 예술학원 강사·외국인 출장마사지사·초등생 등 다양한 직종에서 산발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주는 5321번~5327번, 전남은 3477번~3482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남 감염이 확인된 동구의 모 예술학원 관련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 학원의 강사이며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다. 이로써 예술학원 관련 확진자는 종사자 3명, 학생 2명 등 총 5명으로 늘었다.

또 방역당국은 사람을 다수 접촉하는 태국 국적의 30대 출장마사지사 감염을 확인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30대는 지난 24일부터 증상이 있었으며 지난 3일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30대가 증상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동선 등을 분석하고 있다.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감염도 확인돼 방역당국이 전체 학생과 교직원 22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다.

이 학생은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으며 26일 등교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 2명도 감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은 돌파감염으로 보고 추가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2명이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선별검사와 기확진자 접촉으로 6명이 감염됐다.

지역별로는 나주·구례·보성·해남·영광·완도 각 1명이다.

이 중 나주 확진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선별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으며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에 대해 추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 5명의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지만 다양한 직업군에서 산발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모임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광양경찰, 광양항 유관기관단체 합동 간담회 실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25일 광양항내내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양항 유관기관단체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광양=심승섭기자



광주 남부소방, '남구119안전교육센터' 시범운영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오는 11월 19일까지 '남구119안전교육센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경찰, '민주노총 광주 총파업대회' 연 노조간부 2명 출석 요구

집회·시위법 적용 여부 검토...감염병예방법 고발도 예정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제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주 도심에서 10·20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10·20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간부 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

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방역당국과 경찰의 해산 요청을 무릅쓰고 수천여 명이 모인 도심 대규모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경찰은 출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집회 당시 촬영한 채증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늘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방역당국도 집회 주최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집합 금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 10·20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면서 20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여 동안 광주시청 일대 도심에서 집회·도보행진을 벌였다.

주최측 추산 조합원 3000여 명이 모였으나, 당시 경찰은 집합 인원을 1500여 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했다.

집회 개최 당시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져 있어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9명까지만 모여 집회·시위를 열 수 있었다. 기동취재본부



할러윈데이 대비 코로나19 방역

할러윈데이를 나흘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흥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심야 문 열린 사무실

침입 3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문이 열린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심야시간대 광주 북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잠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동부소방, 무등산 산불-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24일 오전 무등산 중심사 일원에서 무등산119시민산악봉사대와 함께 산불 및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오유나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 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반부패 청렴주간 운영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신현숙)은 매년 10월 넷째주를 도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청렴주간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로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섰다.

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가을철 레저기구 활동자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장휘국 광주교육감, 농성 중 다친 학비노 광주지부장에 사과



2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사 내 천막농성장을 찾아 진혜순 학비노 광주지부장(사 진 앞줄 가운데)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청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크게 다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 광주지부장을 만나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27일 오전 교육청 앞

마당에 설치된 민주노총 광주본부 천막농성장을 찾아 학비노 진혜순 광주지부장을 만났다.

장 교육감은 "전기공급이 안돼 결 과적으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천막농성장 직접 찾아 사과·위로

한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또 "이른 시일 내 교섭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상호존중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지부장은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께 시교육청사 내 천막농성장 뒤 계단에서 넘어져 양팔과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이다.

진 지부장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외출,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장 교육감을 만났다.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오전 간부 회의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 "매우 안타깝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속히 쾌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비노 광주지부는 시교육청과 '2020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단체교섭은 이날 현재까지 교착상태다.

이슬비기자